박동섭 Formosa Korea CEO

“플래스틱 종이 발판삼아 석유화학까지…”

박동섭Formosa Korea CEO

◎ 왕영경 회장은 맨손으로 Formosa 그룹을 세계굴지의 석유화학기업으로 일구었습니다. 성공비결은 무엇일까요?

◇ 왕영경 회장님은 숱한 질문에 항상 이렇게 답하셨습니다.『기업인이든, 정치인이든, 학생이든 누구든지 노력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. Formosa 경영 48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력, 그리고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온 대가가 지금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.』 즉, 왕영경 회장님은 신뢰와 노력을 성공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.

◎ 2002년 왕영경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. Formosa 그룹의 북한에 대한 투자계획은?

◇ 왕영경 회장님께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정부로부터 투자계획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,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와 비슷해 그런지 북한에 대해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북한 인민을 돕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◎ 왕영경 회장은 89세입니다. 요즘의 건강과 후계자 지명은?

◇ 왕영경 회장님은 지금도 일선에서 Formosa 그룹을 진두지휘하고 있고, 여전히 정정하십니다. 후계자 지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합니다만 왕영경 회장님은 일축하셨습니다.『내가 만약 사리분별 가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다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. 나는 최선을 다해 회사를 경영했으며, 회사는 나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. 당연히 회사 안에서 유능한 인물을 선정해 물려줄 계획입니다.』

◎ Formosa Korea의 사업계획은?

◇ Formosa Korea가 설립된 이유는 Formosa 그룹 계열사인 Nan Ya에서 개발한 플래스틱 종이인 백진주 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. 백진주 의 홍보를 위해 먼저 백진주 로 제작한 왕영경 회장님의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.

장기적으로는 Formosa 제품을 국내에 공급해 수요기업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. Formosa Korea의 설립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한국 석유화학 시장을 흐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조심스레 시장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. Formosa Korea는 한국기업과 Formosa 본사를 이어줄 가교역할도 하게 될 것이며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한국의 문화창구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.

◎ 백진주 의 사업전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?

◇ 백진주 의 사업성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플래스틱 종이는 전체 종이 시장의 2%를 차지하고 있지만 2%는 펄프 200만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. 플래스틱 종이는 일반종이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입니다. 또 가격경쟁력도 갖추었습니다. Formosa의 플래스틱 종이 생산단가는 경쟁기업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쉽게

다가갈 수 있습니다.

◎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노조파업이 손꼽히고 있는데…
◇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해 향배를 위태롭게 만드는 불법적인 노조활동은 찬성하지 않습니다.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조차도 근로자의 노조참여율이 18%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. 타이완에 있는 Formosa 그룹 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즘 신문을 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, 심지어는 한국기업들조차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외국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.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◎ Formosa 왕영경 회장과 어떻게 만나시게 됐습니까?
◇ 제가 타이완에 유학갔을 때 왕영경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자서전을 읽고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Formosa 그룹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왕영경 회장님을 흠모하게 됐죠. 유학중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아내의 이모부께서 타이완의 소만장 전 총리였습니다. 그래서 소만장 전 총리를 통해 평소 존경하던 왕영경 회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.

<화학저널 2003/9/29>